

◆ 會員社 動靜 ◆

LG 電線(株), 765KV 초초고압 가공송전선 개발

LG電線(株)(代表: 權炆久)는 차세대 격상 전압인 765kV 초초고압 송전선 및 가공지선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고 韓電 기술연구원이 실증시험을 하고 있는 전북 고창의 송전선 실증시험장에 납품했다고 발표했다.

LG전선이 '93년부터 10억원을 들여 개발에 성공한 765kV 초고압 가공송전선은 저손실 타입으로 코로나 특성과 낙뢰특성이 우수하고 특히 架空지선부문은 도전을 40%에 달하는(기존 ACSR은 20%수준)알루미늄을 사용해 전기적 특성이 우수한 것이 특성이다.

LG전선이 이번에 한전 기술연구소에 실증시험용으로 설치한 765kV 송전선은 총 연장 30km로 오는 5월부터 2달간의 테스트기간이 끝나면 내년 말부터 98년까지 1단계 초고압화 사업구간인 신태백-양평구간에 본격 공급하게 된다.

765kV 초고압 송전선은 선로 하나가 현재 국내에서 최고 전압인 345kV급 송전선의 5개 선로와 동일한 용량을 가지고 있는 반면, 765kV 변전소는 동일 용량의 345kV 변전소와 비슷한 면적을 차지해 765kV에 의한 kWh당 송전비용은 345kV에 비해 반 밖에 되지 않아 송전능력의 대용량화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한전은 전력수급 불균형 해소와 대단위 전원단지 개발에 따른 대전력 수송체계확보를 위해 765kV 송전선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LG전선은 1단계 사업구간인 신태백-양주용 325km구간과 '99년부터 2007년까지 수행할 2단계 총 808km구간에 초초고압 송전선 케이블과 기자재 공급에 참여할 계획이다.

LG전선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발주되는 765kV 초고압 가공지선 그리고 공구류에 대한 국산화 성공으로 '96년부터 100억원 이상의 수입대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國際電機(株), 전기 집진기용 고압정류장치 제어반 개발

國際電機(株)(代表: 金俊哲)는 최근 기존의 ANALOG 및 DIGITAL TYPE에 비하여 공해방지 에너지 절감, 효율면등에서 성능이 우수한 MICRO PROCESSOR TYPE 고압정류장치 제어반을 개발했다.

지난 '92년부터 2년여의 연구기간 동안 5억여원의 자금을 투입, 완전 국산화에 성공한 이 제품은 기존제품이 한가지 종류로만 운전이 가능하여 연료변화나 역전리 발생시 집진효율이 현저히 감소하는 단점을 보완, PULSE 운전, 부하추종 운전, 역전리 운전, BACK-UP 운전등 다양한 운전 MODE를 제공함으로써 연료에 관계없이 최적운전 조건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사용중인 ANALOG나 DIGITAL TYPE에 비해 배출분진 농도를 30~50% 저감할 수 있어 환경오염 방지에도 크게 기여함은 물론 전기저항이 늘거나 흡착력이 강하여 역전리 현상이 발생하기 쉬운 ASH(회)에서는 PULSE 운전을 하므로 소비전력을 50~70%까지 절감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국제전기는 그동안 MICRO PROCESSOR TYPE의 국내 생산이 전무해 수입에 의존해 왔으나 이번 국산화의 성공으로 연간 50억원이상의 수입 대체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번 연구개발 결과를 토대로 보다 경제적이고 향상된 제품개발을 위하여 더욱 많은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 회원업체 KS 표시허가 획득 안내 ●

업체명	규격번호	규격명	종류, 등급 또는 호칭
국제전선(주)	KSC3328	600V 2종 비닐절연전선(HIV)	150mm ² ~500mm
극동전선공업(주)	KSC 3304	비닐코드	비닐캡타이어 원형코드